

사설

대불련 활성화 계획 세워야

대학생불교학생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참여불교재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최근 몇 년간의 취업난 등으로 대학생들이 종교 동아리 활동에 소극적인 것은 불교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학년으로 갈수록 불교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불교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졸업 후 불교계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2년 전의 조사보다 7% 이상 늘었으며, 불교계에서 일을 한다면 언론 출판, NGO, 어린이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불교계도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안정성을 제

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대학생불교회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들이 한국불교계의 잠재적인 인력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회원들이 졸업 이후 출가하거나 불교계의 발전에 사회 각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계 인력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법을 위한 결속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불교계는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발전과 각 대학 불교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장학제도, 취업알선 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초중고 불교학생회와 대학생불교학생회의 활성화는 바로 한국불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불교계의 지도자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수재의연금 1200억에 담긴 뜻

올해의 수재의연금이 모금 사상 가장 많은 액수인 1,200여억원에 이르렀다 한다. 겨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성에 이렇듯 온 국민이 함께 하여 큰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의 성과가 우리 겨레와 나라의 앞날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 성금 모금의 큰 성과는 우리 겨레가 하나임을 온 몸으로 표출하였던 월드컵의 열기가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느꼈던 바와 달리 '우리는 하나'가 바로 이웃의 아픔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졌기에, 한 때의 열기로 끝날 수 있었던 민족적 동질감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힘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제 이렇게 모아진 우리 국민의 노력과 실천의 물꼬를 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보다 더 큰 흐름으로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수재의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빨리, 좀더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성금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 분들이 느낀 감사의 마음이 다시 우리의 '하나됨'의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금의 조속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에까지도 따뜻한 우리의 눈이 뒤따라야 한다.

자비와 화합의 종교인 불교가 이러한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이룩하는데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불교계 전반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전국경불회 조직률 30% 밀돌아

경승단 조사 정기법회 봉행 경찰서 1/3에 불과

경승, 기독교 비해 대부분·활동도 저조

전국적으로 경찰서 불교회인 경불회 조직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경찰서가 3분의 1도 안되는 것 등 경찰 포교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경승단이 7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 231개 경찰서 중 경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뒤, 회신이 온 162군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경불회 경우 경북(17곳 중 1곳), 부산(10곳 중 1곳), 충북(12곳 중 2곳), 전북(5곳 중 1곳) 지역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28%의 낮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정기법회도 대부분 지역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5곳 중 0곳), 경북(17곳 중 1곳), 충북(12곳 중 2곳) 지역은 정기법회를 여는 경찰

서가 거의 없었고, 전국적으로 27% 밖에 정기 법회를 개최하지 않아 경승이 있어도 제대로 포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방 경찰청 중 경찰서 대비 경승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경찰서 당 1.8명), 인천(2명), 충북 및 전북(2.4명) 순으로 드러났다. 경승인원은 경찰청 예산상 본청 4명, 지방청 4명, 각급 경찰서의 기동대에 각각 5명씩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승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천주교 선교활동

을 하는 전국 경신 인원이 800여명, 개신교 선교활동을 하는 경목 인원이 외곽단체를 합해 2500여명인데 비해, 불교 포교를 하는 경승 인원은 514명에 불과하다. 경찰서 내 경승실은 대구(4곳 중 0곳), 경북(17곳 중 1곳), 충북(12곳 중 1곳) 지역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전국적으로도 3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당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제주 지역은 하나도 없는 등 전국적으로 23%밖에 건립되어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및 경기지역이 경찰서 당 경승인원 3명과 7.4명, 경승실 80%와 54% 등과 비교할 때, 지방 경찰 포교가 상당히 취약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사와 관련 경승단 한 관계자는 "경승 개개인이 포교사로서의 관점이 미비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매개체로 직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 뿐 아니라 전무하다시피 한 전 의경 포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11일 유성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경승실장 연수에서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한 강의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편 조사 분석에서 경찰청 직속기관은 4곳에서 1곳에서만 회신이 왔고, 울산지방경찰청은 4곳 중 한 곳도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도로” 강행맨 산사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2일 민주당 안동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동터널의 최저 토피고(土皮高, 터널 최상부에서 지반까지의 높이는)는 16.9미터로 터널 최상부에서 지반까지의 거리가 불규칙하여 얇은 곳은 16m 밖에 안

된다"며 "수리변동보고서 상 토피고가 50m되는 곳에 대한 산사태를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터널이 지하수와 지표수물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회룡사 인근지역의 소음평가가 누락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환경영향재평가 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책 이렇게 만들었다”

덕수궁서 '책의 날' 행사 제16회 책의 날을 맞아 2-6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책 마당 큰잔치'에서 시민들이 <월인천강지곡> 인경 체험(사진)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도 인경체험을 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교보문고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북한도서특별전' '시각장애인용 도서 특별전' '출판 인쇄 역사 페널전' '전자책 전시 및 시연' '인터넷 서점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고영배기자

제26기 합동특도 수계산림

태고종, 11월2일까지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7월부터 11월 2일까지 4주 동안 태고종립 선암사에서 제26기 합동특도 수계산림을 갖는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183명의 행자가 참가해 4주 동안 매일 새벽 4시 아침예불 및 300배 참회정진을 시작으로 강연, 참선, 저녁예불 및 700배 참회정진 등 각고의 수련을 쌓는다. 또한 예경의식, 불교예절, 초발심 자경문, 태고보우국사의 생애, 태고종사, 사찰문화재, 전통홍가사, 좌선의 등도 교육받는다. 교육을 마친 행자들은 교육 마지막날인 11월 1일, 그동안의 교

육 내용을 중심으로 특도교시를 실시, 여기에 협력해야만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이경숙 기자

세계 밀교의식 시연회 세계의 밀교 의식 시연회가 국내에서 열린다. 진각종(총무원장 효안)은 오는 18-19일 서울 성북구 흥인원에서 한국, 일본, 몽골, 티베트 등의 밀교의식을 선보인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혜정 대장사(진각종 교육원장), 티베트의 니창 린포체, 몽골의 단장 람, 일본의 다카하시 류엔(진언종) 등이 참석해 각국의 밀교 의식인 호마의식을 재현한다. 02913-0136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인쇄인 : 김규석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현대” 만평 김영민

“승가가 모범을 보여주세요”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조사위원회 16명 명단 윤곽이 잡혔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최주영 대진대 교수(교통 및 총괄), 전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사찰환경) 등 6명 중 5명을 확정했다. 서울고속도로(주)측은 남영국 인천대 교수(총괄) 등 6명을 확정했다. 김용구 조계종 공동대책위 간사와 한광홍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설계팀장이 대표 간사를 맡으며, 김영철 서울시 도로계획과장과 정석규 경기도 2청사 도로교통과장이 참석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제 7 교 구 분 사

덕 숭 림 修 德 寺

방 장 원 담
주 지 법 장

총 무 지 운 기 획 보 정
교 무 수 암 재 무 정 목
포 교 정 암 사 회 흥 범

총 림 대 중 일 동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 041)337-6565(대) FAX 041)337-0072

불교의 정론지 현대불교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僧 寶 宗 刹 松 廣 寺

方 丈 梵 日 菩 成
會 主 度 然 法 興
住 持 玄 鋒 외 大 衆 一 同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0108